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등잉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8229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12월 1일 (음력 11월 4일) 월요일

2009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문의전화 973-5100

태양광발전소 주변 이상한 떼죽음

돼지 수백마리 폐사·농작물 고사

강진 작천 주민들 "원인 규명하라"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된 이후 인근 마을의 가축이 집단 폐사하고 농작물이 고사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정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은 처음 있는 일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원인 규명이 요구된다.

강진군 작천면 삼당마을 주민들은 "지난 4월 마을 인근 농림지역내 9천㎡ 부지에 489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반경 50m 이내의 돼지와 개 등 수백마리가 폐사하고, 농작물이 고사했다"며 전남도에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 마을엔 125세대 300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가 'ㄱ'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돼지 축사의 경우 올 4월 300마리에 이르던 돼지가 대부분 죽고, 24마리만 살아 남았다. 지난 5월 28일 새끼돼지 1마리가 처음으로 죽은 이후로 9월 28일까지 3~7일 간격으로 1~10마리씩 폐사했다. 특히 지난 6월 21일에는 다리가 하나뿐인 기형 돼지가 죽은 채로 태어나기도 했다.

또, 개 축사에서는 30마리 중 10여 마리가 폐사해 사육을 포기한 상태다. 이 축사는 태양광발전소에서 불과 10여m 떨어져 있다.

피해 축사에서 8년째 돼지를 사육해 온 권태복(53)씨는 "발전소가 들어선 한 달 후부터 돼지가 한 두 마리씩 죽어갔다"면서 "8년 동안 돼지를 키워왔지만, 이 같은 일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또, 태양광발전소 주변 농경지에서도 콩과 깨, 마늘, 벼 등 농작물은 물론 감나무가 이유없이 말라죽었다.

태양광발전소와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밭 농사(1천 600평)를 짓고 있는 오옥순(여·67)씨는 "참깨와 고추, 마늘 농사로 매년 6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렸는데, 올해엔 100만 원 벌이도 못했다"면서 "농작물이 말라죽고, 밭에 있던 20년생 감나무마저 고사했다"고 주장했다.

300여 평에 마늘농사를 짓고 있는 이 마을 오용문(71)씨도 "매년 300kg 정도의 마늘을 수확했는데, 지난 5월 수확을 앞둔 상황에서 모두 말라 죽었다"고 하소연했다.

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자, 태양광발전소 허가 기관인 전남도에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전남도 축산기술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월 현장점검에 나선 전남도는 "전문기관이 아니어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축산기술연구소도 "최근 태양광발전소와 축사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조사했으나 규명할 수 없었다"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주민들은 "지금까지 잘 크던 가축과 농작물이 죽어가는 데, 관계기관에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가축과 농작물이 왜 죽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해 태양광발전소로 허가된 업체는 모두 636곳으로 총 허가발전용량은 336MW 규모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광주 금남로 성탄트리 점등

연말연시를 맞아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 대형 성탄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다. 광주기독교단협의회(회장 강상원 목사)는 지난달 30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2008년 성탄 트리 점등식을 갖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 높이 18m짜리 원뿔형 트리는 내년 1월 중순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대교협 "3불 정책 폐지 검토"

지방 수험생 불리 '논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최근 한 세미나에서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데 이어 4년제 대학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3불 폐지'를 언급하고 나섰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금지가 풀릴 경우 ▲수도권 특목고 우선의 입시전형 ▲본고사 부활로 인한 사교육비 급증 등 지방 수험생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대교협 박종렬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2010학년도 대입 전형 주요사항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여입학제 도입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실시문제는 대학 자율로 둬도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특히 고교등급제와 관련, "서울에서 2010학년도부터 고교선택제가 시행되고 이 제도로 진학한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해가 2012년이다. 따라서 이 때쯤이면 자연스럽게 '고교등급제 금지' 방침이 무너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연합뉴스

제4회 광주일보 문학상

이미란 '꽃의 연원'

'제4회 광주일보 문학상' 수상자로 이미란(전남대 교수·사진)씨가 선정됐다. 〈관련기사 16면〉

김형중(문학평론가·조선대 교수)씨 등 심사위원단은 응모한 단편소설 '꽃의 연원'에 대해 "중국을 배경으로 유사한 상처를 지닌 한국인과 중국인간의 소통 문제를 다룬 소설로 구성이 치밀했다"면서 "최근 한국소설 초미의 화두인 '국경 넘기'의 테마를 자연스러운 서사 속에 녹여내 시의성을 높이 살 만 했 다 "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98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소설 부문에 단편소설 '분신'이 당선되면서 등단한 이씨는 남원 출신으로 전남대 국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 현재 전남대 국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시상은 내년 1월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서 함께 수여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방 對 수도권 '정면 충돌' 임박

수도권 與 의원들, 규제 폐지 법안 상정 움직임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폐지 법안의 국회 상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수도권-비수도권'의 '정면 충돌'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특히, 비수도권이 지난달부터 장외 집회와 수도권 규제 법안의 국회 상정 저지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8일 발표될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이 미흡할 경우, 정국에 소용돌이가 몰아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수도권 규제 등이 담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폐지안과 함께 광역단체장에게 개발 권한을 대폭 이양한 '수도권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 철폐 법안 발의를 위한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기회로 수도권 규제 철폐를 공식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맞서 비수도권은 정부의 종합발전대책을 기다리면서도 장외 집회와 국회 차원의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의 상정 저지에 나서고 있다. 〈2면으로 계속〉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알/립/니/다

'희망 전도사' 김홍빈 대장

세계 7대륙 최고봉 완등 도전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45) 대장이 광주일보사 후원으로 남극 대륙 최고봉인 빈슨 매시프(Vinson Massif·4,897m)에 도전합니다. 등정에 성공하면 그는 양손이 없는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 정상에 모두 오르는 대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관련기사 3면〉

오는 11일 대장정에 나서는 김 대장은 지난 1991년 북미 최고봉인 맥킨리 단독 등반 도중 동상에 걸려 손가락을 모두 잘라야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7대륙 최고봉을 하나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 번째 도전 끝에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8,848m) 정상을 밟았고 이제 남극 최고봉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불굴의 의지와 끊임없는 도전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은 그를 '희망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김 대장의 7대륙 최고봉 완등은 세계 산악계의 쾌거이자, 장애인은 물론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 용기를 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 대장과 원정대의 성공을 위해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주 최 : 광주전남비전21 협 찬 : (주)에코로바
후 원 : **광주일보**, KTF, 광주광역시, 순천시, 순천메디팜병원, 금광기업

디스크? 수술없이 치료하는 척추 추나 클리닉
청연한의원 광주 상무지구 M타워 5층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중·고생 겨울방학 합숙특강!
개강 :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감사진
호남한샘학원

아모레퍼시픽이 꿈꾸던
그 아리따움이 태어납니다
ARITAUM